

#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칸

택시 그리고 나의 가족



## 택시 그리고 나의 가족

아티스트 칸의 <Mr. Taxi>는 차량의 트렁크 부분의 단면을 절단한 작품으로, 모양은 소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인 만큼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트렁크 부위에는 뒷좌석이 부착된 가구형 설치물입니다. 이 작품에 사용된 택시는 30년간 운전을 하면서 무려 750,000km를 주행하다가 은퇴한 실제 택시 기사가 몰던 진짜 택시입니다. 즉 사연을 전한 택시 기사가 은퇴 후에 그가 몰던 택시를 폐차장에 보내는데, 그 택시를 폐차시키지 않고 작품의 재료로 구현한 일종의 정크아트입니다. 이제까지 수명을 다한 여러 차량들이 아티스트 칸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정크아트 풍의 <Mr. Taxi>는 종래의 차량 작품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택시 기사였던 사연자와 30년간 동고동락한 후 결별한 차를 예술품으로 부활시켜서 원래 주인에게 선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폐차장에서 구해낸 <Mr. Taxi>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폐차로부터 조형미를 재발견하는 정크아트처럼, 차가 원래 지닌 주행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조형적인 감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일 겁니다. 이로써 생계를 위해 함께 달린 자동차의 '일부'를 떼어 기념비처럼 소장하고 감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의미는 차량의 뒷좌석을 탈착해서 트렁크에 옮겨놓아 실제 앉아 쉴 수 있는 실용적인 소파로 만든 것입니다. 추억을 기리는 관람 대상이자, 안락을 위한 의자의 기능까지 겸비한 작품입니다. 글 · 반이정



[brilliant memories] 작가 칸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30년을 함께 손님을 태우고 달렸던 택시는 오늘 폐차장으로 갑니다. 하루 중 16~18시간을 택시에서 보낸 택시기사는 30년간 일을 빠져본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20년 무사고운전 및 모범운전으로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한 택시기사와 함께 택시는 다른 승용차의 2배가량인 750,000km를 달렸습니다.

인생 그 자체였던 택시를 떠나 보내는 택시기사의 마음은 시원하긴커녕 섭섭한 마음뿐입니다. 그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 작가 칸



### 작가 인터뷰

30년 동안 앞자리에만 앉아 계셨던 택시기사님에게 그 시간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쓸 수 있음과 동시에 빛나는 30년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 프로필

아티스트 칸은 서울예대 디자인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3년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5번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14년 울산 국제설치미술제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 미술 행사 및 전시에 참여했습니다.